

결혼과 여성의 지위

함께 나눌 문화 양식의 상실

전통의례 전수시키려는 기성세대와 의미 모를 교육에 짜증나는 신세대 공존

요즘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세대차이'라는 표현만큼 정확한 것도 없다.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양식이 없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한 공동체로 모여 살아야만 하는 가족에서 세대차이는 갈등요소의 하나. 밥 먹는 것에서부터 조상에 대한 제의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채 '한술밥'을 먹어야 하는 요즘 가족들은 모두가 어리둥절한 느낌을 가진 채 살아간다.

한 종가집에 상이 났다.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신 것이다. 8남매와 집안 친인척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상주는 8남매 중 유일한 아들이다. 집안 어른들은 도착하는 대로 8남매에게 '곡'을 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종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집 아들과 종부인 그의 아내는 어리둥절한 뿐이다. 생전 '곡'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본 적도 없는 탓이다. 한 어른의 선창을 따라 곡을 시작한 종손과 종부는 "아이고~, 아이고~"를 시작했지만 스스로 쑥스러운 생각에 금세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만다. 때로는 어른들 눈길을 피해 키득거리기도 한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옆구리를 쿡 쥐어박는다. 집안 어른들 눈에 아들 내외 책 잡힐 것이 염려스러운 어머니의 경고다. 다시 종손 내외의 곡 소리는 커진다. 나머지 딸들의 반응도 이와 비슷했다. 어른들이 곡을 해야 한다고 하니 억지로 하는 것이지 낯설기는 마찬가지



였다.

곡(哭)보다 진혼곡에 익숙한 젊은 세대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은 사자를 애도하는 마음을 곡으로 읊어 올리는 데에 익숙해 있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곡 소리를 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그들에게 이 곡은 산 자로서 죽은 자를 잘 보내기 위한 예의와 형식을 의미한다. '곡' 소리가 없는 초상집이란 더 없이 을씨년스러울 뿐 아니라 '배운 것이 없는 집안'임을 나타내는 꼴이 된다.

그러나 부친상을 당해 억지로 곡을 하고 있는 이 종손은 서양의 진혼곡이나 추도음악의 곡조에 더 익숙해 있다. 말만 종손일 뿐 아버지 세대가 공감하고 있는 사자를 위한 형식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이 종손은 마음속으로는 무척 슬프지만 그 슬픈 마음을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 소리에 담아내기에는 영 서투르다. 어른들 보기에 칠없어 보이는 이 종손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제의형식을 만나지 못한 것이 더 힘든 것이다. 차라리 영화에서 봤던 서양식의 장례식이라면 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폭 젖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탈상 때도 이 집안의 종손 내외는 어리둥절한 형식을 만났다. 이집 어머니에 따르면 상복을 벗을 때에는 세수대야에 물을 떠 놓고 자손들이 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동서남북으로 네번을 절하면서 상복을 하나씩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탈상 절차를 숙연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 집 어머니 뿐이었

다. 8남매는 킁킁 웃기도 하고 안한다고 거역하기도 했다.

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다기보다는 '뭔지 모르지만 곧 끝날 행사니까' 따라 한 편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어머니 세대가 끝나면 이런 장례 절차는 상당부분 축소되고 변화하리라는 생각은 어렵지 않다.

"제사 안 지내는 것이 큰 부조"

가정의례준칙이란 것도 생겼던 적이 있을만큼 우리사회의 가정의례는 복잡한 절차를 지니고 있다. 그 복잡한 절차는 전통시대에서 살아왔던 기성세대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젊은 세대들은 가족과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고리타분'한 느낌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가족을 지배하

이 공통의 상징을 가지지 못한 것은 현재 우리 가족문화가 겪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세대간의 단절은 여성들 사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마련이다. 가족의례의 대부분이 여성들의 노동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족의례의 형식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우리 가족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젊은 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족의례를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 해서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간 젊은 여성들은 제사가 없다는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좋은 집안에 시집갔다"고 만족해하기도 하고 "제사 안 지내는 것이 큰 부조더라"고 말하기도 한다.

상징 공유에 실패한 가족문화

어느 사회, 어느 집단이나 다양한 의례가 있게 마련이다. 의례는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일치감을 경험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설은 의례에 담긴 상징을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을 때에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